

김남훈

변호사

상법 기본강의(기초입문)

-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한 사법시험·변호사시험·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모두 정리
- 출제가 예상되는 실무적인 쟁점도 정리
- 사례형 답안작성의 방법 제시
-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선택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
- 상법의 중요 쟁점을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분하여 강의
- 수험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철저하게 수험서화
- 별도의 기본서나 강사요약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단권화

■ 강의일정 2021년 2/1(월) ~ 2/10(수), 오전,오후, 월~금 강의, 총 18 회(※1일 2회 연장)
오전 9:30 ~ 1:00
오후 2:30 ~ 6:00
※2/7(일) 강의 있음

■ 교 재 상법강의(송옥렬, 2021년 제11판, 근간)
+단권화 보충자료(제공)
+법전(반드시 지참).
※교재는 서점 구매

■ 강의특징

I. 상법의 학습방법

- 상법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i) 사례형에서 회사법이 100점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ii) 선택형에서 50% 이상인 10문제 정도가 회사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ii) 기록형에서 제2회 시험에서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 제3회 시험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 제5회 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과 백지어음 및 지급제시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와 상사매매, 제6회 시험에서는 대표소송의 문제, 제7회 시험에서는 주총결의의 하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II. 강의의 진행방향

-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에 출제된 모든 쟁점을 정리할 것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쟁점은 수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므로,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도 모두 정리할 것입니다. 상법은 교재의 분량에 비하여 출제될 쟁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쟁점만 정리해도 시험 준비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도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은 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의 또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선택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즉 상법의 중요 쟁점을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강의특징 III. 교과서를 수험서로 만들기

- 강의교재로 정한 상법강의(송옥렬 교수님)은 위와 같은 학습방법과 최근의 출제경향에 가장 부합하는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수험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철저하게 수험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즉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별도의 기본서나 강사요약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단권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밑줄 작업도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수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강의를 통하여 제1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강사요약서로 전환하지 않고 사례집과 선택형 문제집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개정법과 최신 판례만 추가하는 것으로 변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V. 효율적인 강의수강의 방법

복습 위주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도 예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학습방법 및 개인상담은 개강 후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의 종강 후의 민사법에 대한 질문은 단체 카톡방(개강일 공지)을 통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강의진도 ※ 상법총칙 (2회) ➡ 상행위법 (2회) ➡ 회사법 (8회) ➡ 어음수표법 (4회) ➡ 보험법 (2회) 순서로 진행합니다.
- ※ 별도의 진도표는 없습니다. 예습은 매일 60페이지 분량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